

익산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전북 지자체 중 4번째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등
아동친화 6대 영역 20개 사업



익산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과 아동친화 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다. 지난 2019년 제1기 익산시 아동친화도시서포터즈 발대식. <익산시 제공>

익산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54번째, 도내에서는 4번째 아동친화도시 인증이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 보전과 보다 나은 삶의 영유 등을 위해 노력하는 친화적인 환경의 지자체라는 것을 공인하는 것이다. 인증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필요한 10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46가지 세부 항목을 평가해 결정한다. 인증 자격은 4년간 유지된다. 시는 인증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 요소를 이행하며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해왔다. 시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아동이 주체적인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이 행복하고 마음껏 뛰놀수 있는 익산'을 비전으로 관련 예산을 확대해 아동친화 6대 영역별 20개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맞춤형(아이사랑) 콜택시,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등을 하고 있으며 아동의 안전과 교육환경, 놀이와 여가 생활까지 전 분야에 걸쳐 폭넓은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2019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 2년6개월 동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쏟아부은 우리의 열정이 이제 한 단계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구축해 출산율 증가와 인구 유입 등의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순창 농어촌버스 요금 1400원→1600원...4년만에 인상

교통카드 이용 단일요금 1000원
순창지역 농어촌버스 요금이 4년여 만에 인상된다. 순창군은 전북도의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조정 심의·의결'에 따라 7월부터 농어촌버스 일반 요금을 140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17년 1월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만 19세 이상 일반 성인과 만 13~18세 청소년은

각각 200원이 인상된다. 일반요금은 1400원에서 1600원으로, 청소년 요금은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조정된다. 만 6~12세 어린이의 경우 기존 700원에서 800원으로 100원 오른다. 교통카드 이용 시에는 2018년 2월부터 시작한 단일요금 1000원이 적용된다. 각 요금에서 50원이 할인된다. 순창군은 버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 변경 내용을 균형 홈페이지

와 이장회, 순창터미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순정홍 순창군 경제교통과장은 "서민부담 가중을 고려해 전북도에서도 요금 인상 시기를 몇 차례 늦췄으나 계속되는 농어촌버스 업계의 경영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요금이 인상됐다"면서 "순창 주민은 교통카드 이용 시 단일요금 1000원 적용으로 혜택이 큰 만큼, 교통카드 이용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정읍경찰 역사 담은 '100년사' 발간

정읍경찰서가 지역 경찰의 역사를 담아낸 '정읍경찰 100년사' <사진>을 발간했다. '정읍경찰 100년사'는 임시정부 경찰 창설을 시작으로 정읍경찰의 지난 100년을 고찰함으로써 정읍경찰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긍심 높은 경찰상을 정립하고자 발간됐다. 책자는 정읍시 소개, 정읍경찰의 시대별 연혁, 경찰서 구성 및 활동사항, 정읍경찰서 경찰관 소개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미군정기의 어둡고 힘들었던 시기의 경찰 역사를 비롯해 6.25 전쟁 당시 구국경찰의 모습과 정읍경찰서를 점

령한 북한군의 만행 등이 가감없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정읍서는 책자발간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간 경찰대학, 기록매체박물관 등에서 자료를 발굴하고 서내에 보관 중이던 사령원부, 치안일지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해 464페이지 분량의 '정읍경찰 100년사'를 제작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현직 경찰관들이 직접 집필한 책자는 총 700부가 제작돼 각 경찰관서,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정읍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김영록 정읍경찰서장은 "과거에 실수한 것은



거울삼아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좋은 것은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자"면서 "정읍경찰의 역사가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후손들에게 알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집중호우 대비 공사장 95곳 안전점검

정읍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1일까지 주요 사업장 9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 대비 안전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 정밀하게 점검하고, 우수 흐름에 지장이 있는 지장물을 제거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침수 우려 지역과 토사 붕괴 우려 지역에 대한 보강작업을 추진하고, 배수펌프장과 지하차도 등 배수시설 정비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 시 시청과 읍

·면·동 담당 직원의 비상근무를 추진하는 등 호우 피해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 맹용인 도시안전국장을 필두로 배수펌프장 5개소와 지하차도 8개소, 지방하천 정비공사 현장 3개소 등을 점검하고 재해 위험요소를 즉시 제거했다. 맹용인 정읍시 도시안전국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예측 불가한 집중호우 발생이 잦은 만큼 철저한 대비와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우기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우리동네 퍼실리테이터' 20명 배출

치유문화도시 조성 서포터 역할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가 치유문화도시 기초지원 강화를 위한 '우리동네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통해 고창의 토론문화를 바꿀 전문가 20명을 배출했다. 퍼실리테이터는 회의나 교육의 진행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돕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번 교육은 마을부녀회장, 농업인, 협동조합 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마을활동가, 요식업종사자, 회사원 등 남녀노소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해 진행됐다. <사진> 교육 이수자들 전원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한국

퍼실리테이터연합회 3급 자격을 인정하는 인정서가 전달됐다. 이들은 향후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주최하는 문화도시시민포럼, 고창문화민회 등 치유문화도시 사업 관련해 퍼실리테이터로 직접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설정환 고창문화도시지원 센터장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 계층간 문화향유 격차를 극복하는 동시에 고창읍과 면 지역 간의 문화적 서비스와 정보 등에서 불균형이 생기는 것을 조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느 지역이든 주민들이 문화도시의 변방에 머무르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함파우 유원지 일대에 꽃단지 조성

60억원 투입 10ha 규모
남원시가 대규모 꽃단지 조성을 통해 시민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선다. 남원시는 최근 노암동 함파우 유원지 일원에 대규모 꽃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정원 조성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원 조성은 함파우 유원지의 남원시립 김병중 미술관, 남원예술촌, 항공천문대, 춘향테마파크와 광한유원 등을 연계해 '체험형 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다. 함파우 지방정원은 총 60억원이 투입돼 10ha 규모로 조성된다. 시는 올해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정원은 옛다솜이야기원과 천문대, 소리체합관을 연결하는 정원으로 대규모 꽃단지과 숲을 활용한 산지형 정원으로 꾸며진다. 또 짙어와이어와 모노레일에서 충분히 꽃단지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해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함파우 지방정원이 옛다솜 이야기원과 주변 관광지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남원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